

선교사로서의 칼빈

Calvin as Missionary

번역: 김성욱

(역사신학)

- I. 들어가는 말
- II. 수신자들
- III. 제1장: 복음으로 인도
- IV. 자연적 신인식과 연결 가능성
- V. 두 번째 부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선포
- VI. 전망

“칼빈의 주석”에 관한 주제 중 첫 번째 강의입니다. 여기서 칼빈의 성경주석이 전체적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후에는 몇몇 성경구절들을 언급할 것입니다.

I. 들어가는 말

몇 년 전 한철하 교수님(전 ACTS총장)께서 제게 선교사로서의 칼빈

에 대하여 발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칼빈을 선교사라고 할 만한 적합한 것이 생각나지 않았다. 물론, 1557년에 브라질사람들에게 신앙고백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칼빈이 살아있을 동안 칼빈주의자들이 브라질에 선교센터를 건립하였지만, 이 단체는 얼마되지 않아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 동안에 나는 칼빈의 초기 작품으로써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1535년의 Olivetanbible에 있는 신약성경 서문이다. 엄격하게 검증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칼빈의 첫 신학저서로서, 소위 1536년의 기독교강요를 위한 전단계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이다. 이 올리비탄성경은 프랑스 성경출판에 있어서 통틀어 두 번째로 출판된 성경이다. 이 올리비탄성경은 알프스 산지의 Walddens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분명히 프랑스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 서문은 1536년의 기독교강요 초판이 나오기 바로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서문은 1800년 까지 최소한 188개의 프랑스어판과 영어판 성경들에 나와 있다. 물론 앞으로 이탈리아나 스페인어로 된 성경들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서문은 칼빈의 작품들 중에 가장 많이 인쇄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개괄적인 사실로 인하여 칼빈 연구에 있어서 이 서문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1543년의 재판 서문에는 두 가지의 부제가 있다. 1장: “어떻게 우리 주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는가?”이고, 2장: “성경에서 찾아야 할 핵심”. 결론 부분을 3장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수신자들에게 대한 권면들이 들어있다. 우리에게 의문으로 남는 것은 칼빈이 왜 2장 혹은 3장으로 구분했느냐 하는 점이다. 그것은 칼빈의 선교 방법과 원리들을 보여준다.

II. 수신자들

칼빈을 이방인 중의 선교사로 규명하는 것은 너무나 현대적인 생각

인 것 같다. 칼빈과 모든 종교 개혁가들이 살았던 세계는 서부 유럽이었다. 그 당시에는 터키 군대가 비엔나 근처까지 침공해 들어와 유럽의 다른 나라들까지 위협하였다. 아메리카는 얼마 전에야 비로소 발견되었으나, 아직 선교해야 할 땅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유럽을 제외한 이방의 지역으로 나가는 어떠한 통로도 당시에는 없었다. 따라서 선교의 대상으로는 유대인들만 남아 있었는데, 칼빈이 올리비탄성경의 구약의 서문을 그들에게 쓴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칼빈의 동시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세례가 강제적으로 시행되던 시대에 세례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사실) 세례에 대한 교육은 종교개혁을 통해서야 비로소 도입되었다. 칼빈은 두 그룹을 언급한다: 곧 그리스도를 아는 그룹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룹이다. 저들(그리스도를 아는 그룹)은 믿음 안에서 강해져야 하고, 이들(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룹)은 반드시 믿음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칼빈은 선교사인 것이다. 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칼빈은 특별히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진솔하게 말을 건네고자 한다: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교사나 학생이나, 성직자나 평신도들이나 그리고 불어를 사용하는 이들이나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는다. [49,Z.4-10]¹⁾ 여기서 물론 칼빈을 복음전도자라고 명명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는 칼빈은 하나의 한정된 그룹을 선별한다: 보다 한정된 그는 먼저 “남,여 기독교인들”을 [49,Z.38] 언급한다. 그 다음은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인데,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해야 할 것을 말한다.[49,Z.48ff.] 그리고는 수종업자와 인간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지식인들로 이들은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을 말한다

1) 본 논고에 표기된 page와 출판호는 E. Saxer의 불어-독일어판에 준한다. E. Saxer, Calvin-Studienausgabe, Band 1, 1, Neukirchen-Vluyn 1994, S.27-57. 비교. W. H. Neuser, The first outline of Calvin's theology - the preface to the New Testament in the Olivétan Bible of 1535, Kores. Bulletin for Christian Scholarship 66, 2001, No. 1 & 2, p.1-38.

[51, Z.7-16]. 지식인들은 사실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지만 전심(全心)을 다하지는 못한 인문주의자들이다. 사실 칼빈 자신도 불과 몇 해 전에는 저들 중의 하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라는 첫인사 자체는 실제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무어(Meaux)의 개혁가들에게 한 인사이다. 그들의 프로그램은 “복음”-전도운동-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이었다. 하지만 칼빈은 그들이 성경적 도덕주의를 주장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 중심적 경건한 자들이 아니란 것을 알았다. 칼빈의 프로그램은 (그들에 비해)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과 영원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과 인간적 지혜를 혼합시키는 중도파들이 있었다. 따라서 칼빈의 선교적 상황은 오늘날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체불명의 이상(理想)으로 뒤쫓는 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와 반대로 마지막에 가서는 왕들과 왕자들 그리고 지배자들에 대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시대와 연관되어 있다. 그들은 가치있는 교훈(딤후 3:16)을 후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카톨릭의 비숍과 사제들인데, 그들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칼빈은 어떻게 이 모두를 얻고자 했을까?

III. 제1장: 복음으로 인도

칼빈이 성경으로부터만 다룬다는 사실은 인상적이다. A. Ganoczy의 *The young Calvin*에서는 “우리는 칼빈이 성경 외에 다른 자료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강한 인상을 받는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수신자들을 논의의 중심에 이끌고자 칼빈은 오직 성경을 사용한다.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칼빈은 제1장에서 창조를 다룬 후 성경의 여러 부분을 섭렵하고, 구약 성경에서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으로 끝을 맺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완전하시고 탁월하신 전 만물의 창조주 이신 하나님께서 ...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문장으로부터) 우리는 칼빈이 구약과 신약의 구속사를 이야기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만약 그랬더라면 그것은 단순하고 간단한 선교적 입장의 선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것과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 이러한 인간 “본연의 특징”을 잃어버린 것을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관점에서 창세기1-3장을 주석한다. 그러나 칼빈은 아담이나 하와의 이름, 타락의 개념, 뱀의 이야기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등에 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칼빈은 성경의 원역사(Urgeschichte) 중에서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만 기록한다. 창세기 4-11장에서는 노아의 이름이나 방주에 대한 언급 그리고 무지개나 바벨탑에 관한 것도 생략되어 있다. 그 대신 칼빈은 창세기 6장을 강조한다. 창세기6:6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으며, “저주받은 후손들”은 방탕하고 악한 것이 특징이다 (창6:1-5). 그는 죄의 타락의 무거운 결과를 분명하게 언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나서 칼빈은 연대기적으로 훌쩍 뛰어 넘는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칼빈은 애굽에서의 구원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십계명은 칼빈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십계명은 인간들에 의하여 지켜지지 않았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언제나 우상을 섬기는 일로 변화되는 사실을 칼빈은 강조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구약이 정리된다. 칼빈은 구약의 언약에 대하여 서술할 때에야 비로소 다시금 구약에 대하여 언급한다.

우리는 이러한 개략적 서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는다. 칼빈은 성경의 원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바로 그러한 원역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것이다. 창조 - 하나님의 형상 - 그 형상의 상실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모든 사람은 심판의 저주아래 있

는 것이다. 칼빈은 인류 초기 역사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연관되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인간의 기본 상황을 분명하게 설정하고자 한다. 이것과 연관된 것이 시내산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의 성경 주석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칼빈은 단지 구약의 구원론적인 설명들만 거론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형상이나 언약 체결과 율법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거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이다. 짧게 말하자면, 은혜와 죄가 자신의 선교메세지의 첫째 부분의 주제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키는 성경적 근거들을 풍성하게 다루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관시키는 것이 난해하지만 다음의 문장으로 시작한다: “인간들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기 위하여, 단단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깨지지 않게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였다.” [41, Z.1f.]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는 것”이란 다시금 구원론적으로 생각된 것이다.

새 언약의 특별한 점이란 훨씬 나아진 점에 있다; 이 언약은 굳건하고 더 확실하며 파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이제야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 강조가 있는 것이다. 인간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더 이상 이 언약을 해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칼빈은 언약 신학을 대변하는가? 언약은 칼빈의 선교적 설교에 있어서 입문서와 같은 것인가?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언약이란 여러 다른 것들 중에 하나의 색인용 단어에 불과하다. (오히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창세기 3:15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창세기 12:3의 아브라함의 후손, 창세기 26:24의 이삭의 축복 그리고 창세기 49:10의 야곱의 축복이다. 다니엘 9:24의 70이레: 이러한 최소한 13회 이상의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연결점들이 지적된다.

그러나 또 하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지적할 수 있겠다.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구세주를 길고 긴 대망 속에 예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문화된 율법을 위탁시키셨다. 거기에
 는 다양한 예식들과 정결의식들 그리고 제사들이 있다. 그럼에도 이것
 은 큰 자비하심의 단지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데, 이 자비하심이
 란 이 모형과 그림자의 내용이며 진실이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
 이다.”[41,Z.17-23] 구약에서의 제사에 대한 설명과 십자가상의 희생
 은 절대로 여기서 제외될 수 없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의 원리를 다른
 원리에서 끌어내고 있다. 이 원리란 바로 율법이다. 이어서 세 성경구
 절들이 언급되고 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다(롬 10:4),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선생이다(갈 3,24),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함(갈 4:4이하). 이 성경구절들에 대하여는 여기서 다룰 필
 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
 다. 칼빈은 선교적인 설교를 위하여 율법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를 더
 끌어들인다. 말하자면 곧 칼빈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모든 개혁자들의 특징인 것
 이다. 중세교회에 대항하여 율법에서 해방된 복음을 펼쳐야 했었다. 율
 법은 구약에 언급된 구원의 표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기도 하다. 바울 사도에 의해 율법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
 과 성령 안에서의 삶이 증거되었다. 즉 칼빈에게는 율법을 이용하여 이
 방인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문화되
 지 않은 율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IV. 자연적 신인식과 연결 가능성

칼빈의 독특성은 자연적인 하나님의 지식의 연관성에 대하여 반복적
 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언제나 그는 로마서1장(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과 신성이 창조로부터 보여졌으며; 하나님의 진노도 드러난 것), 로마
 서 2:4(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 로마

서 2:15(율법은 이방인들의 마음에 기록되었나니), 사도행전 14(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많은 선한 것들을 행하시며) 사도행전 17(모두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으신다)을 반복하여 인용한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 사도가 유대계 이방인들의 선교에 적용하였다고 알고 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 인식하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유지자이시며 심판자요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마침내 그는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에 대한 자연적인 인식이 있다고 말한다. 마침내 이런 증거들과 변론들을 통하여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요소들 속에서 칼빈은 자연신학과 어떤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가? 이 표현은 칼 바르트(Karl Barth)와 에밀 부른너(Emil Brunner) 사이에 벌어졌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연결고리를 둘러싼 논쟁을 연상시키게 한다. 제 견해로는 그 연결점을 부인하였던 칼 바르트가 옳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칼빈은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부분적인 신인식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단계의 신인식인가? 마치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칼빈은 그것을 기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부분적인 신인식이란 개념은 그것을 인간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하는 양적인 크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본래적인 신인식은 창조주의 선물로서 인간에게 새겨진 것이다; 곧 그것은 선물이지만 인간이 본래부터 소유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이 선물을 잃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이 인식을 가진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와 동일하게 분명한 것은 인간이 그것을 언제나 반복적으로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칼빈은 인간에 대한 고전적인 위상 개념을 사용한다. 칼빈이 질문하기를 “인간이 창조된 그 상태에서 무엇을 했어야 했는가?” 이에 대하여 답변은 “하나님의 전능

하심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했어야 했다.”
등등 [35,Z.10-12].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 눈이 빛에 대하여 어두워졌으며(롬1,21b), 경
고에 대하여 귀가 멀었으며 계명에 대하여 강박해져 있다는 점이
다.”[39,Z.26f.] 우리는 여기서 칼빈의 신학적 사고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적 특성을 보게 된다. 그는 존재론적으로 생각지 않고 행위론적으
로 생각한다. 인간은 선물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인간은 그것을 잃어버
렸다. 결과적으로 칼빈은 사람들이 세우려는 자연신학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선교사들도 역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설교자는 이런
본래적인 인식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새롭게 역
사하셔서 인간이 신앙에 이르도록 한다. 바로 이와 같은 행위론적 사고
방식은 칼빈은 기독교강요의 모든 판에서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칼빈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
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칼빈은
시편으로부터 많은 구절들을 제시하는데, 이는 모두 생명이 있든 그렇
지 않든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
것들은 무언의 증거이다. 칼빈은 그것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다
른 사람들에게 말해 줄 수 있는 “표지와 문장(방패의 문
장)”[37,Z.22-24]이라고 명명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능력, 자
비, 지혜와 영원하심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새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짐승들은 하나님을 부르며, 만물은 그분 앞에서 떨며, 산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메아리치며, 강들과 샘들은 부드러운 눈길을 그분께 보낸
다.”[37,Z. 38-40] 오늘날에도 복음선포에서 자연 속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많은 이의들을 기대할 만
큼 자연을 잘 알도록 교육받은 것인가?

V. 두 번째 부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선포

복음으로 안내하는 일과 복음의 주제는 칼빈에게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 율법에 의해 상세하게 보여진 구속사도 핵심 곧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내용은 아니다. 믿음의 핵심은 칼빈이 “언약”의 개념에서 널리 언급하였듯이 “복음”과 “메시아(구세주)”이다. 이 개념들을 칼빈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언약이란 새롭고 변함없는 약속이며 동시에 유언자의 언약이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증보자(히 9:15)이시며, 언약을 보증하셨고 자신의 죽음으로 그것을 확증하셨습니다. (히 9:16) [45, Z.5-8]

“복음”이란 “언약”과 같은 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귀와 직책에서 이것이 설명된다. 칼빈이 메시아 직책과 연관하여 말할 때는, 언제나 “증인”이란 단어를 거듭하여 떠올린다. 신약성경적 표현은 언제나 선포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것은 다시금 칼빈의 행위론적인 사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적 언급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다. 확실하고 의심할 수 없는 증거로 인간에게 증거되어야 한다. 우리도 역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끝까지 선교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첫째 증인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하나님 자신이다(마 3:17). 성령님께서서 우리 마음에 강한 증인이다(요일 5:6).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눅 1,31ff.), 베들레헴의 천사(눅 2:13f.), 시므온(눅 2:25ff.), 세례요한(요 1,29) 그리고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다. 예수의 대적자들 마저도 그를 증거한다: 가야바(요11:49), 헤롯과 그 부인(마 27:19), 마귀와 불결한 귀신(막 1,25). 모든 언급된 사람들의 증거들은 실제적으로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도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어찌면 우리에게 생소할지도 모르는 창조물들도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바다의 폭풍(막 8:26), 그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물고기가 드라

크마를 전달해 주는 일(마 17:24) 바위가 갈라지고 해가 빛을 잃으며, 수 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마 27:51ff.).

마침내 그리고 동시에 앞에서 언급된 수신자들이 지적된다. 사실은 그들이 수신자들로 하나하나 열거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증인들의 순서는 그들과 함께 확장되어야 한다. 칼빈은 이제 복음을 찬양하기 보다는 차라리 박해를 견디라고 각성시키는 설교자나 권고자와 같다.

많은 면을 할애하면서 칼빈은 복음의 고귀함을 자세히 나열한다.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공동체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우리 곁에 소유함[51,Z.30]은 우리가 그의 영을 통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는 것이다 (갈 2:20).”[55,Z.30]

칼빈이 제시하기를 “모든 빛의 주인이신 분은 거룩한 구원을 부으시는 복음과 함께 그의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드시며, 눈먼 자에게 빛을 비추시며, 모든 백성들과 나라를 그의 진리가 다스리게 하신다. 그리하여 모든 세계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한 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한 신앙과 한 복음을 알게 하신다.” [57,Z23-28]

칼빈은 제2장(그리고 3장)이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의 핵심(전부)”이라고 명명한다. 확실히 그는 제1장의 구약적인 해석들을 간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클라이막스이자 주제라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며, 목회적인 활용인 것이다. 칼빈은 새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해석하기를 결코 힘들어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복음 선포가 여기에 있는 주제를 함유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

VI. 전망

이미 언급하였듯이, 신약성경의 이 서문은 칼빈의 생애동안 그리고 나중에도 계속 판을 거듭하였다. 칼빈이 자신의 생애동안 자신의 신학 노선을 변경하였는가? 자연적인 신인식에 대한 강조는 약화하였지만 그것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후에 칼빈은 인간의 상실에 관하여 창세기 6장이 아니라 창세기 3장으로 설명하였다. 몇 가지 개별적인 사례들이 더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향한 칼빈의 입장은 언제나 동일하였고 그의 전체적인 조망도 같았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